

## 성인기 애착 양식원형과 내적 작동 모델 요소간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 수 정<sup>†</sup>    신 민 섭    김 중 술    권 석 만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애착에 대한 원형적 접근방식과 내적 작동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주장에 근거하여, 성인기 애착 양식과 내적 작동 모델의 네 가지 요소 즉 애착경험 기억 표상, 자기 및 타인표상, 대인관계 소망 및 욕구, 대인관계 대처행동 및 책략 간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 내적 작동 모델 네 가지 요소 표상의 내용과 차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애착 대상이 누군가와 그 특성에 따라, 개인 내 성인 애착 양식의 원형점수와의 차별적이고 복잡한 상관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내적 작동 모델이 내재되어 있다는 데 대한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인 애착 양식, 원형적 접근, 내적 작동 모델

성인기 애착 양식

애착 행동 체계는 유아가 안정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있고자 하는 행동을 조절하는 항상적(homeostatic) 과정이다(Bowlby, 1977). 애착 이론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애착 행동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한 수 정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연수원 / TEL : 02-760-2405 / E-mail: cris5260@hotmail.com

에 대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즉 유아와 양육자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였는가에 따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가능한(accessible) 존재인지에 대한 표상 즉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된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애착 양식이 개인마다 달라지게 된다.

Bowlby는 아동기 애착에 초점을 두었으면서도 내적 작동 모델이 평생동안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Bowlby, 1973). 이에 착안한 Main 등이 성인기 애착 면담(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고안하여, 부모에 대한 기억과 그와 관련된 현재 마음 상태(state of mind)를 통해 그 사람의 애착 양식을 파악하고, 그것이 그 사람 자녀의 애착 양식과도 관련됨을 보임으로써 성인기 애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또한 이와 독립적으로 Hazan과 Shaver가 성인 남녀의 애정관계를 애착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성인 애착 양식도 Ainsworth가 아동들을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분됨을 밝혀내면서 성인기 애착 양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Hazan & Shaver, 1987, 1990; Shaver, Hazan, & Bradshaw, 1988).

성인기 애착 양식에 대한 분류에서 Hazan과 Shaver(1987) 및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두 체계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파악된 애착 체계의 '기능적' 조직화에 근거하여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안정형은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여기고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고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반면, 불안/양가형은 낮은 자기 가치감을 보상하기 위

해 타인과 과도하게 밀착된(enmeshed) 관계를 맺고자 하며, 회피형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부인하고 강박적으로 자기의존(compulsive self-reliance)하고자 한다(개관은 Hazan & Shaver, 1987).

이에 비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의 이론에 따라 내적 작동 모델의 내용에 근거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자기 및 타인 표상의 긍정성 두 차원을 조합하여,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이 모두 긍정적인 유형을 안정형, 모두 부정적인 유형을 공포형(fearful), 자기표상은 긍정적이나 타인표상이 부정적인 경우 무시형(dismissing), 그 반대인 경우를 몰입형(preoccupied)으로 분류하였다(Bartholomew,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자기 및 타인 표상 긍정성 두 차원은 Hazan 등의 분류에 기저하는 것으로 밝혀진 불안 및 회피 차원과도 같은 것으로(equivalent) 여겨질 수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개관은 Shaver & Hazan, 1993). 불안 차원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 타인의 거절에 대해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기표상의 긍정성 차원과 관련되며, 회피 차원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타인표상의 긍정성 차원과 관련된다(Bartholomew와 Horowitz, 1991).

두 분류 체계를 비교해 보면 Hazan과 Shaver(1987)의 안정형과 불안/양가형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안정형과 몰입형에 각각 상응하지만, 전자의 회피형은 후자의 체계에서 무시형과 공포형으로 세분된 것이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따르면 무시형과 공포형 두 회피 유형은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공포형은 자기 가치감이 낮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욕구가

강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절이나 상실경험을 하게 될까 두려워 관계를 회피하는 반면, 무시형은 자기 가치감이 높고(적어도 외현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어서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방어적으로 부인하고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Bartholomew,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Griffin & Bartholomew, 1994a, 1994b).

### 내적 작동 모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자기와 타인 및 대인 관계에 대한 심적 표상으로, 일종의 인지적-정서적-동기적 도식이다(Collins & Read, 1994b). 생애 초기에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점차 다른 유의미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그 개인 특유의 것으로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작동 모델은 경험이 마음에 부호화되는 방식에 대한 다른 개념들, 즉 정신분석 이론의 ‘내적 대상’, ‘대상 표상’, Kernberg의 자기-대상-정서 단위, Sandler와 Rosenblatt의 ‘내적 드라마로서의 표상 세계’, 인지 및 발달 심리학의 ‘스키마’, ‘스크립트(script)’, ‘개인구성체계(personal construct)’, Stern의 통합적 발달-임상 이론에서의 ‘일반화된 상호작용 표상’ 등의 개념과 많은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Collins & Read, 1994b; Diamond & Blatt, 1994).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평생 동안 그리고 주로 의식권 밖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Bowlby, 1978).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다른 도식과 마찬가지로 자기영속적

(self-perpetuating) 특성도 지니고 있어 생애 초기에는 쉽게 변화할 수 있으나 청소년기 이후에는 공고화되어 변화하기 쉽지 않다(Collins & Read, 1994).

내적 작동 모델이 일종의 심적 표상이자 도식으로 개념화되므로 마치 인지적 신념체계만을 포함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 행동 체계가 발현되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체계의 경험에 대한 표상, 그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과 정서 및 동기, 애착 행동 체계가 발현되었던 행동적 책략에 대한 표상을 모두 포함한다(Collins & Read, 1994b).

다시 말하면 내적 작동 모델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네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자신의 애착관련 경험에 대한 기억 표상이다. 여기에는 유의미한 애착 대상과의 특정한 상호작용과 구체적 사건(episode)에 대한 기억 표상 뿐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 및 설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이 실제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험 자체가 서로 다른 애착 양식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적 작동 모델에 내재된 것은 개인적으로 평가되고 재구성된 기억 표상이다. 둘째, 애착과 관련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 태도, 기대 등의 인지적 표상이다. 여기에는 자기 표상, 타인 표상, 타인 표상 가운데에서도 구체적 대상들에 대한 각기 다른 표상,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신념이나 태도 및 기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기대 혹은 스크립트까지 모두 포함된다. 세번째 요소는 애착관련 목표와 욕구, 감정 및 소망과 같은 정서적 동기적 표상이다. 애착 행동 체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안정감(felt security)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목표가 아동기에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달성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애착과 관련된 여러가지 욕구와 감정에 개인차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욕구,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의 정도, 양가감정 등이 개인마다 다를 것이며 또 이러한 목표나 욕구를 일반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특정한 관계에서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착목표 달성과 관련된 행동적 전략과 계획 표상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정서적 자극 상황을 다루고, 내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고 유지하며, 자율성과 친밀감 및 관계성을 서로 조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 및 전략에 대한 내적 표상이 포함된다. 이는 구체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관찰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발현’되지만, 그 ‘심적 표상’은 내적 작동 모델의 한 요소이다(Collins & Read, 1994). 특히 네번째 요소에 있어서 아동기와 달리 상호호혜성 요소가 요구되는 성인기 애착의 경우 애착 대상에 대한 보살핌 행동(caregiving)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Kunce & Shaver, 1994).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독립적인 애착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e.g., Baldwin & Fehr, 1995; Collins & Read, 1994; Cozzarelli, Hoekstra, & Bylsma, 2000; Shaver, Collins, & Clark, 1996). 아동기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애착 양식이 아버지와의 애착 양식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Bretherton, 1985;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Main & Watson, 1981; 개관은 Fox, Kimmerly, & Schafer, 1991). 더욱이 성인기에 이르면 애착 대상이 부모 뿐 아니라 배우자(애인), 친구, 자녀 등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내적 작동 모델은 더욱 복잡해진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on, Biringen, Ridgeway, Maslin & Sherman, 1989). 실제로 또래와의 애착

표상과 부모와의 애착 표상이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독립적이며, 애착 대상에 따라 보이는 애착 양식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aldwin et al., 1996; Cook, 2000; 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이렇듯 내적 작동 모델이 다양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성인이 복잡한 사회적 세상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애착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Collins & Read, 1994).

이런 이유로 내적 작동 모델은 하나의 단일한 도식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모델망(model network)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Collins와 Read(1994)는 다양한 애착 모델이 위계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지만 Baldwin 등(1996)은 위계가 아니라 상호 복잡하게 연결된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모델, 배우자에 대한 모델, 친구 가운데에서도 가까운 친구에 대한 모델과 소원한 친구에 대한 모델 등 여러가지 특정한 모델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로 구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애착 경험의 양과 질의 차이는 애착 모델망 구조의 복잡성, 모델망의 크기와 강도, 애착 모델망의 내용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더욱 정교하고 분화되어 있을 것이며, 정서적 강도도 더 클 수 있다(Collins & Read, 1994).

#### 측정의 문제 : 원형적 접근

성인 애착 양식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 방법에는 크게 차원적, 범주적, 원형적 접근법이 있다.

차원적 접근은 애착 양식 범주에 기저하는 차원을 도출하여(예: 자기표상 긍정과 타인표상 긍정 차원,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 등) 각 차원과 여러 관련 변인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에 대해 상관, 회귀, 구조방정식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다(e.g., Hazan & Shaver, 1987; Bartholomew & Horowitz, 1991). 범주적 접근은 여러가지 관련 변인에 대해 변량분석을 통해 애착 범주간에 양적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기존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주류를 이루어왔다(Bartholomew & Shaver,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그러나 전술한 바 성인기에는 유의미한 애착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단 하나의 애착 양식에만 완벽하게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애착 양식을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애착 양식이 무엇인가, 또 그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신뢰로운 접근이라 하겠다(Baldwin & Fehr, 1995; Baldwin et al., 1996; Collins & Read, 1994; Shaver et al., 1996). 때문에 성인 애착 양식 연구에 있어서는, 애착 양식의 범주 자체가 아니라 그 범주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원형(prototype)을 상징하고, 각 원형의 특성을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그 정도의 차이 즉 원형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각 원형점수의 프로파일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애착 양식을 파악하는 원형적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Griffin & Bartholomew, 1994). 이러한 원형적 접근은 범주적 접근에서 초래되는 정보의 손실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그 범주 원형의 전형적 특성을 더욱 잘 파악하게 해준다.

#### 기존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 목표

성인 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대인

관계의 질과 같은 외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개관은 Shaver & Hazan, 1993). 이후 정서조절 과정, 자기표상 등과 같은 정신내적(intrapsychic) 변인과의 관련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애착 양식 범주에 대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 이들은 대개 차원적 범주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애착 연구에서 원형적 접근이 이상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애착 양식의 개인 내적 변산, 즉 한 개인 내에서도 여러가지 애착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ldwin et al., 1996; Cook, 2000; La Guardia et al., 2000; Lewis, 1994; Shaver et al., 1996).

한편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 양식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개인차를 결정지으며, 대인관계 관련 결과 변인을 예언하는 핵심 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이에 주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 변인을 내적 작동 모델의 요소로 개념화하지 않은 많은 연구들도 실은 내적 작동 모델의 특성을 규명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양식에 대한 원형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중요 핵심 변인인 내적 작동 모델과 애착 양식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애착 양식 ‘범주’가 아닌 개인 내 각 애착 양식의 ‘정도’와 내적 작동 모델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의 애착 양식 원형 분류, 즉 안정형, 공포형, 무시형, 몰입형의 구분에 따라 개인이 각 원형에 부합하는 정도를 애착 양식 변인으로 삼았다. 한편, 네 애착 원형 점수에서 자기표상 긍정성과 타인표상 긍정성 차원이 도출될 수 있는 바 부가적으로 상관 분석을 통한 차원적 접근도 시도하였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원형적 접근이 가장 이상적임을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만약 범주화가 필요하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애착 원형을 그 사람이 속하는 범주로 정하고 이를 그 개인이 '가장 우세하게 보이는 애착 양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이를 통해 내적 작동 모델 변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 검증도 부차적으로 실시하여 원형적 접근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점수와 변량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결과 제시를 생략하고 전체논의에서만 언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적 작동 모델을 개관한 바 네 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의할 것은 본 연구의 초점은 내적 작동 모델 요소 즉 '심적 표상'이며, 예컨대 실제적인 부모 양육행동이나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행동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단일 연구이지만 편의상 내적 작동 모델 요소 네 가지에 대한 연구 개관 및 결과 논의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할 것이며,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 탐색적 조사임과 지면이 한정적임을 고려하여 결과에 대한 예언을 생략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1. 애착 관련 경험에 대한 기억 표상 :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

부모로 대표되는 일차 양육자가 유아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즉 그 양육행동이 어떠하였는가가 유아의 애착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이 Bowlby 연구의 시작이자 기본 가정이었으며, 이에 대해 발달심리학적 전통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Ainsworth, 1969; Bowlby, 1969/1982, 1973, 1980; Bretherton, 1985).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니라, 내적 작동 모델 첫째 요소로서의 애착관련 경험에 대한 기억 표상 가운데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이 성인기 애착 양식 원형과 어떠한 차별적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범주적 접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Hazan과 Shaver (1987)에 따르면, 안정형은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보살펴주고 반응해주었고, 자신감이 있고 요구적이지(demanding) 않았다고 기억한 반면, 회피형은 어머니가 차갑고 거부적이었다고, 양가형은 아버지가 불공평하고 비일관적이었다고 기억하였다. Feeney와 Noller(1990)가 호주 집단을 대상으로, Mikulincer(1990)가 이스라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였고 특히 양가형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양가형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왜 특히 부정적 인지는 현재까지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Rothbard와 Shaver(1991)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은 어머니가 편안하고 유머있고 자신감 있고 태평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신뢰롭고 솔직하고 이기적이지 않았다고 기억하였고, 현재도 어머니가 필요할 때 있어주고(available)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따뜻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회피형의 경우, 아버지가 의지할 수 없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기억하였고, 어머니가 표현적이고 민감하고 보살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친밀했다고 기억하는 정도가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아버지가 유머있고 정열적이고 좋아할 만하고 표현적이고 정서적이고 동정적이었다고 기억하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적대적이고 상처를 주고 비열하고 죄책감을

유발하고 속박하려 하고 거부적이었다고 기억하는 정도가 안정형보다 더 높았다. 양가형의 경우 어머니가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간섭을 많이 하고 자신이 엄마를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기억하였고, 아버지는 완고하고 참을성이 없고 비합리적이고 시무룩한 경우가 많았다고 기억하였다. Griffin과 Bartholomew(1994)에 따르면 공포형은 부모가 거부적이었다고 기억하였고, 무시형은 부모에 대한 이상화하여 말하면서도 간접적으로는 부모가 거부적이고 차가움을 시사하는 말을 하였다. 몰입형은 양가형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과잉보호하고 서툴렀지만 때로는 반응적이고 접근가능(accessible)했다, 즉 비밀관적이고 신뢰롭지 못했다고 기억하였고, 안정형은 부모가 때로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지지적이고 따뜻하고 수용적이었다고 기억하였다.

위의 연구는 주로 자기보고 질문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반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한 연구를 보면 성인 애착 관계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반드시 부모가 따뜻하고 사랑해주었다고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e.g., Pearson, Cohn, Cowen, & Cowen, 1994). 또, 모든 어머니는 때로 반응적이고, 비판적이고, 간섭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범주적 접근을 사용하면 어머니가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측정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Griffin & Bartholomew, 1994).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애착 범주 자체가 아니라 개인내 애착 원형의 정도가 어떠한 양육적 행동에 대한 기억과 차별적으로 관련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nce와 Shaver(1994) 등의 분류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이해해 주었는지에 대한 민감성-둔감성 차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

었는지에 대한 수용-거부 차원,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는지에 대한 협동-통제 차원,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는지에 대한 접근가능성 차원, 부모와의 신체적 접촉이 편안했는가의 차원,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정서 표현 차원, 부모보다 나 자신을 더 우선시해서 보살펴 주었는지에 대한 강박적 보살핌의 7개 차원으로 부모 양육 행동을 구분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성인 남녀 각각 38명과 61명씩 총 99명, S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현실검증력의 장애가 없는 남녀 환자 각각 10명과 12명씩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콜남용장애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정상인 집단이 26.42세, 환자집단이 34.50세였고, 학력은 정상인 집단은 전문대졸 13명, 대학생 13명, 대졸 50명, 대학원졸 이상 22명이었고 환자 집단은 고졸 6명, 전문대졸 4명, 대학생 1명, 대졸 9명, 대학원졸 이상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상인 집단과 환자 집단 모두 연구 참가에 대한 댓가로 심리평가 해석을 받기로 하고 연구에 동의하였다. 주 분석은 정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 집단은 보완적인 분석에만 포함시켰고 결과 제시도 간략히 하였다.

### 도구

#### 관계 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RQ)

Bartholomew와 Horowitz (1991)가 구성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안정형, 공포형, 몰입형, 무시형 4가지 원형적 애착 양식을 기술하는 네 단문에 대해 자신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 애착 원형 점수의 조합을 통해 자기 및 타인 표상 긍정성 차원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안정형과 무시형 점수를 더하고 공포형과 몰입형 점수를 빼면 자기표상 긍정성 점수, 안정형과 몰입형 점수를 더하고 공포형과 무시형 점수를 빼면 타인표상 긍정성 점수가 된다.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Parental caregiving scale: PCB)**

Kunce와 Shaver(1994)가 문헌 개관을 통해 유아 애착 양식과 관련되는 양육자 행동의 7개 차원을 도출하고 각 차원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 것을 본 연구자가 자기 기술문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민감성-둔감성, 수용-거부, 협동-통제, 접근가능성, 신체적 접촉, 정서 표현, 강박적 보살핌의 7개 차원에 대해 각 2-4문항씩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각 문항당 7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결과 및 논의**

관계 질문지로 평가된 네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기억 표상으로서의 부모 양육 행동 7개 차원 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애착의 안정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자율성을 존중해 주며,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었다고(available) 지각되고, 신체적 접촉에 있어 편안함을 느끼며, 감정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욕구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해 주었다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는

기억과 관련되었다. 한편 애착의 공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기억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애착의 몰입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일관된 기억표상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몰입형 애착의 중요한 특징임을 의미할

표 1. 애착 양식 원형점수와 부모 양육행동 기억 표상간 상관

	안정성	공포성	몰입성	무시성
부(모) 민감성	.24*(.21*)	-.24*(-.17)	-.07(.18)	-.06(.21*)
수용성	.14(.21*)	-.15(-.24*)	-.13(-.09)	-.09(-.11)
협동성	.28**(0.08)	-.10(-.22*)	-.18(-.02)	.17(.07)
접근 가능성	.21*(.17)	-.25*(-.13)	-.06(.11)	-.10(-.16)
신체적 접촉	.20*(.10)	-.12(-.09)	-.03(.15)	-.15(-.17)
정서 표현성	.28**(0.10)	-.15(-.18)	-.06(.03)	-.10(-.00)
강박적 보살핌	.26**(0.07)	-.18(-.29)	-.10(-.02)	.05(.11)

\*  $p < .05$ , \*\*  $p < .01$



수 있다. 과거 범주적 접근을 통한 연구에서도 몰입형 애착양식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면담에서 부모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이 지지할 수 있다. 무시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과는 무관하였으며 다만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나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이에 맞추어(tuning) 주지 못했다는 기억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무시형이 부모를 이상화하면서도 부모가 거부적이었다는 기억을 모순되게 보고하였음을 고려할 때 몰입형과 마찬가지로 무시형이 적어도 자기보고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일관된 기억표상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상관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무시성 애착 양식의 정도가 어머니가 민감하지 못했다는 기억과 관련될 수 있다’ 혹은 ‘그러한 기억표상이 무시형 애착의 중요한 원형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뜻이지,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무시형 애착양식을 발전시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표상과 애착 원형간에 관련성이 오히려 더 높고 세분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대개 일차 양육자로 많은 연구 관심을 받아온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 표상도 내적 작동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애착 양식이 내면화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Levy, Blatt, & Shaver, 1998). 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표상이 상기 7개 차원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더욱 세분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가적으로 환자 집단에 대해서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무시성만이 아버지의 협동성, 강박

적 보살핌, 정서표현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경증적 문제를 가진 경우 무시성 애착 원형이 내면화되는 데에 아버지가 통제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관련됨을 잠정적으로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차후 검증이 요구되는 예비적인 것이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2. 애착의 인지적 표상 : 자기 표상 및 타인 표상

내적 작동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표상과, 다른 사람들이 반응적이고 가용하고(available) 접근가능한가에 대한 타인 표상이다(Bowlby, 1987). 기존 연구는 역시 범주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안정형이 양가형보다 자존감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일치하나(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Griffin & Bartholomew, 1994; Mikulincer, 1995). 회피형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도 있고(Feeney & Noller, 1990), 이들의 방어적 특성 때문에 안정형만큼 자기표상이 긍정적이지만(Collins & Read, 1990; Mikulincer, 1995, 1998) 안정형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반면 회피형은 부정적 자기특성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ikulincer, 1995, 1998). 타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형은 긍정적으로, 불안정형들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ldwin, Fehr, Keedian, Seidel, Thomson, 1993; Collins, 1996; Hazan & Shaver, 1987).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azan과 Shaver (1987)의 연구에서 안정형은 자신을 좋아할 만하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 쉬운 존재로 보며, 타인은 호의적이고 마음이 좋다고 지각하고, 애정 관계를 친구같고 행복하고 신뢰롭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은 자존감과 사회적 자신감이 높고, 대인관계 지향적이고 자기 주장적이었으며, 타인을 신뢰롭고 의지할 수 있고 이타적으로 보았다. 회피형은 자기 주장성이 높다는 면에서는 안정형과 유사하였으나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감, 대인관계 지향성, 타인에 대한 의존가능성이 더 낮았다. 양가형은 타인의 이타성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도 이러한 결과들을 지지하였다.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내용(hedonic tone) 뿐 아니라 여러가지 차원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양가형은 타인과 밀착(enmesh)되고 싶은 소망 때문에 자기와 타인의 유사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회피형은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자기와 타인의 유사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ikulincer & Horesh, 1999). Mikulincer(1995)는 자기표상의 내용 뿐 아니라 자기복잡성, 자기 측면의 분화와 통합의 정도, 자기 구조에 정서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 각 애착 유형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안정형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정적인 면도 수용하며, 자기 도식이 고도로 분화되고 통합되어 있고, 자기 영역과 관점간 괴리(discrepancy)가 낮았다. 회피형은 긍정적이고 분화된 자기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서경험에 자기구조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형과 유사하나, 부정적

인 자기 측면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분화된 자기 측면들간의 통합성이 낮았고, 자기의 영역과 관점간의 괴리 정도가 높았다. 양가형은 자기표상이 부정적이고 분화와 통합 수준도 낮았으며 괴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 타인표상과 관련된 연구에서, 애착 양식과 부모 표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Levy et al., 1998). 이 연구에서 안정형은 부모 표상이 잘 분화되고 정교화되어 있고, 호의적이고 비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무시형은 분화 수준이 낮고 처벌적이고 악의적인 부모 표상을 보였다. 공포형은 부모를 처벌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보았지만 표상이 비교적 잘 분화되어 있었고 개념적으로도 복잡성을 띠었으며, 몰입형은 부모가 처벌적이면서 동시에 호의적이라는 양가적인 표상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표상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이 긍정성과 부정성 차원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타인 표상의 경우도 Levy 등(1998)의 부모 표상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반 타인에 대한 표상을 도 다루고 있으며, 애착 양식의 개인내 변산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 애착 대상을 좀더 세분화하고 있기는 하지만(Baldwin et al, 1996; Cook, 2000) 그 대상의 '표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개인은 어떤 타인을 애착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Baldwin & Fehr, 1995; Collins & Read, 1994; Shaver et al, 1996) 타인 표상의 대상을 좀더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인 표상은 그 특정성(specificity)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타인 표상은 좀더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수준을 잘 예언하는 반면, 특정한 타인에 대한 표상은 그 관계와 관련

된 심리적 결과물을 더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개념적 특정성 수준에 있는 변인들간에 예언력이 가장 높아진다는 주장들을 고려할 때 애착 대상을 특정성 수준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Cozarelli, Hoekstra, & Bylsma,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특정성 수준에서 유의미한 타인과 일반 타인으로 구분하고, 유의미한 타인을 다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나 애인, 친구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및 타인표상의 일반적인 요인구조를 밝힌 질문지를 통해 애착 양식과 관련된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의 긍정-부정 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타인 표상이 애착 양식과 차별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자기표상 및 타인 표상 평가 : 자기-타인표상 평가 척도 형용사형(Self-Other Representation Inventory, SORI, 권석만과 김지영, 투고중).

이 척도는 권석만과 김지영(투고중)에 의해 표상에 긍정성, 부정성 외에 여러가지 다른 중요한 차원이 존재하며, 타인 표상에도 부모 뿐 아니라 친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 표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자기 자신, 부모,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식, 평가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애인)와 유의미한 친구도 대상에 포함시켜 총 여섯 대상에 대하여 120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권석만과 김지영(투고중)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에 대해서는 사교성, 호의성, 유능성, 완고성 요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능성, 호의성, 사교성의 세 요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호

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 네 요인, 일반 타인에 대해서는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의 네 요인이 기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위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배우자와 친구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사용하였으며, 배우자의 경우 호의성, 주장성, 유능성, 사교성 네 요인이, 친구의 경우에는 지배성, 호의성, 유능성, 주장성, 사교성의 다섯 요인이 도출되었다.

## 결과 및 논의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자기-타인표상 질문지 하위 척도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애착 안정성은 자기가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극적이며, 타인에 대해 호의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표상, 아버지가 유능하고 호의적이라는 표상, 친구가 능동적이고 유능하고 적극적이라는 표상, 대체로 사람들이 사교적이고 유능하면서도 자기 주장적이라는 표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배우자에 대한 표상은 서너가지 요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애착의 공포성은 자신이 소극적이고 비사교적이며 친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지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타인표상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의식적 수준에서 부모나 일반 타인, 배우자에 대해 일관된 표상을 형성하지 못하는 점이 공포성 애착의 원형적 특징임을 시사할 수 있다. 몰입성의 경우 어떠한 표상 점수와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 1에

표 2.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자기-타인 표상간 상관

		안정성	공포성	몰입성	무시성
자기	사교성	.44**	-.24*	-.17	.08
	호의성	.28**	-.12	-.06	-.11
	유능성	.22*	-.14	-.15	.10
	완고성	.18	-.16	-.19	.11
부	유능성	.24*	-.17	.06	-.24*
	호의성	.20*	-.07	.04	-.24*
	사교성	.05	-.02	.12	.14
모	호의성	.11	-.05	.16	-.11
	사교성	.17	.03	-.03	-.06
	유능성	.11	.01	.08	-.11
	완고성	-.11	.09	.12	-.11
일반타인	호의성	.06	-.06	.12	-.15
	사교성	.26*	-.10	-.03	-.02
	유능성	.22*	-.02	.00	-.13
	완고성	.25*	.03	.02	-.05
배우자	호의성	.21	-.15	.20	-.15
	주장성	-.07	.06	.10	-.13
	유능성	.11	-.02	-.00	-.11
	사교성	-.02	.00	-.05	-.05
친구	능동성	.23	-.21*	-.03	.05
	호의성	.19	-.13	.06	-.26**
	유능성	.30**	-.18	-.01	-.09
	주장성	.09	-.06	-.12	.05
	적극성	.24*	-.09	-.13	.07

\*  $p < .05$ , \*\* $p < .01$

서 몰입성이 부모 표상과도 무관하였던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애착의 몰입형에 있어 그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와 타인에 대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표상을 형

성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임을 시사한다. 한편 애착의 무시성이 내면화되는 데에는 아버지가 무능하고 호의적이지 못하며, 친구 역시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이라는 표상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집단에 대한 부가적 분석 결과, 신경증 집단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주로 표상 내용의 유능성, 호의성과 많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포성 애착은 배우자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하다는 표상, 스스로 무능하다는 표상이 관련되었다. 몰입성 애착은 자기 자신, 어머니, 일반적인 타인과 친구가 특히 ‘무능하다’는 표상이 많은 관련성을 가졌고, 자기표상과의 부적 관련성이 더욱 높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시성은 친구의 능동성과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그 의미는 다소 불분명하며, 신경증 집단에서는 애착의 무시성이 의식적 자기 타인 표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애착 양식과 자기와 타인 표상의 관련성에 있어서, 표상의 내용, 대상이 누구인가 여부 및 대상의 특정성에 따라 규칙적인 패턴을 갖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잠정적이기는 하나 정상인 집단과 신경증적 환자 집단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구라는 대상의 표상이 성인 애착에 상당히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인기에는 친구가 적어도 자기보고식으로 평가가능한 즉 의식권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애착 대상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편적인 자기 타인표상에 대해 요인구조가 밝혀진 질문지를 사용하여 각 요인과 애착 원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으로, 표상의 ‘보편적’ 구조 상에서는 애착 양식과의 뚜렷한 차별적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볼 수 있고, 내적 작동 모델 요소로서

의 자기 타인 표상은 이와 다른 수준이나 차원상에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배우자와 친구에 대해서는 타인 표상 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하위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다.

또는 내적 작동 모델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그 개인에게 있어 가장 우세한 애착 양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기와 대상표상에 있어서의 요인구조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우세한 애착 양식에 따라 개인을 범주로 나누고, 각 애착 양식에 따라 자기와 각 대상에 대해 갖는 표상의 요인 구조가 서로 다른가, 다르다면 그 차별적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도, 자기 타인 표상과 관련된 애착 원형들의 ‘전형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 과제로 생각된다.

### 3. 애착 관련 목표와 소망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소망이나 욕구가 무엇인지, 그러한 소망이나 욕구가 얼마나 만성적인지 혹은 늘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충족 정도는 어떠한지 등도 인지적 표상과 함께 내적 작동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정서적 동기적 요소가 인지적 표상보다도 오히려 대인관계 관련 변인들을 더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Shaver & Hazan, 1993).

이론적으로 안정형인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고, 관계 내에서 친교와 자율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서로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이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 신뢰한다. 양가형은 친밀한 정도를 넘어 거의 밀착된

(enmeshed) 관계를 소망하여 자율성 수준이 매우 낮고 동시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여 양가적이다. 두 회피형은 모두 정서적,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데, 무시형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공포형은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러하며, 이러한 회피형들은 애착과 무관한 목표 즉 성취 등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또한 이러한 욕구들이 얼마나 현저한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정도로 다른데, 아마도 양가형이 애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클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Hazan과 Shaver (1987)은 회피형이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양가형이 질투 등의 강렬한 감정, 상호호혜성에 대한 강한 소망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은 자의식적인 불안이나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소망 수준이 낮았고, 회피형은 친밀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양가형은 애정대상을 이상화하고, 과도하게 몰두하며, 의존성 수준이 높았다. 또한 양가형은 타인과 밀착되고 싶은 소망 때문에 자기와 타인의 유사성을 높이 평가하여 투사적 동일시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형은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자기와 타인의 유사성을 낮게 평가하고 원치않는 자기(unwanted self)에 대해 투사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ikulincer & Horesh, 1999).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대인관계적 소망과 욕구를 세분화하기보다는 애착 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 가정, 즉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소망과 욕구를 느끼는 대상을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소망에 대해 얼마나 충족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간과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소망과 감정을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친밀감에 대한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절 회피 욕구,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인정욕구, 관계에서의 양가감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기가치감을 느끼는데 있어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도 고려하였으며(개관은, La Guardia, et al., 2000), 이러한 욕구와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일반 타인,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애인), 일반적 친구 혹은 특정한 친구로 세분화하여, 애착 양식과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대인관계 욕구와 소망 척도

기존의 이론적 틀에 따라 연구자가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일반 타인, 부모, 배우자(애인), 일반적 친구 네 대상에 대해 친밀감 욕구, 거절 회피 욕구, 프라이버시 욕구, 인정욕구, 양가감정 다섯 가지 욕구와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욕구 당 단일 진술문을 두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욕구 만족 척도(Need Satisfaction Scale)

La Guardia 등(2000)이 자기 결정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대해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욕구 충족 정도에 따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 애착 대상에 대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La Guardia 등(2000)에 따르면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애인), 가장 친한 친구, 룸메이트, 유의미한 다른 어른 한 명을 대

상으로 하였을 때 신뢰도가 각각 .91, .94, .88, .85,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애인), 특정한 친구를 대상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대인관계 소망 및 감정 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안정성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소망과만 관련되며, 특정한 유의미한 타인 즉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보고 방식으로는 대인관계적 욕구나 거절 불안 등이 현저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애착이 안정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면 주관적으로 더 이상 유의미한 타인에 대해 욕구가 더 충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현저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공포성 애착의 경우 그 정의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 자기 가치감 충족을 위해 타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어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회피하는 경향과 관련되므로 양가감정과의 관련성이 일반적 특정적 관계에서 모두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인기 가장 유의미한 애착 관계라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은 소망이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성인기에는 공포성 애착의 회피 욕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몰입성 애착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절 회피 욕구가 매우 중요한 원형적 특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몰입형 애착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타인과 과도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표 3. 애착 원형 점수와 대인관계 소망간 상관

		안정성	공포성	몰입성	무시성
일반타인	친밀감 욕구	.25*	-.16	.37**	-.28**
	거절 불안	-.07	.17	.30**	-.17
	프라이버시 욕구	.13	.28**	.09	.19
	인정 욕구	.10	.14	.18	-.12
	양가감정	.06	.38**	.05	.16
부모	친밀감 욕구	.12	.01	.10	-.16
	거절 불안	.03	.06	.28**	-.22*
	프라이버시 욕구	.02	.07	.21*	-.06
	인정 욕구	.07	.17	.10	-.09
	양가감정	.10	.24*	-.06	.16
배우자	친밀감 욕구	.07	.15	.13	-.14
	거절 불안	-.09	.17	.25*	-.26**
	프라이버시 욕구	-.01	.20*	.23*	.18
	인정 욕구	.15	.05	.11	-.20*
	양가감정	-.16	.36**	.10	.19
친구	친밀감 욕구	.21*	.04	.18	-.26*
	거절 불안	.11	.03	.32**	-.30**
	프라이버시 욕구	.02	.10	.08	.11
	인정 욕구	.10	.04	.24*	-.26**
	양가감정	-.10	.23*	.09	-.04

\*  $p < .05$ , \*\*  $p < .01$

하지만 자기가치감이 낮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거절 불안을 느끼게 되리라는 이론적 가설과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또한 친밀감 욕구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만 관련성을 보였으며, 안정성에 비해 상관이 비교적 높았다. 여기에서 몰입형이 막연한 강한 친밀감 욕구를 느끼지만 구체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많은 갈등적인 감정과 소망을 현저히 느끼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밀착된 관계 소망과 관련되는 몰입성 애착이 부모와 배우자라는 가장 유의미한 타인과의 특정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프라이버시 욕구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이는 구체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고 관계에 정서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 몰입형 애착의 중요한 원형적 특성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친구관

계에서의 인정욕구와 정적 관련성을 보인 것은, 성인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잠재적 자기대상(selfobject) 충족의 원천인 친구관계에서는 자신의 유능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이 몰입성 애착이 관련됨을 의미할 수 있다.

무시성 애착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인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고, 특정한 수준의 관계에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특히 같은 또래인 배우자와 친구에게서도 어떤 인정을 받고 싶지도 않다는 표상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식적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대인관계 욕구와 소망마저 부인하려는 경향이 무시성 애착 원형의 중요 특징임을 시사한다. 한편 흥미롭게도 무시성과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정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방어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이상화와 부정적인 기억간의 모순성이 무시형의 현상적 세계 안에 현저했던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고통이 무시성 애착을 우세하게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관련된 소망이나 부정적 감정들을 모두 부인하고 강박적으로 자기의존하게 만드는 동기적 힘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환자 집단에 대한 부가적 분석 결과, 애착 안정성은 모든 관계에서의 거절 불안과 부적 상관을, 배우자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욕구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포성은 배우자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욕구, 친구 관계에서 거절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몰입성은 일반적 관계와 부모 관계에서 거절 불안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무시성은 부모,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절 불안, 부모에 대한 프라이버시 욕구, 부모와 친구에 대한 양가감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신경증 집단에 있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중요

한 대인관계 감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착이 안정적인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회피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경향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공포성과 회피성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바, 신경증 집단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애착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집단에서는 무시성이 양가감정 뿐 아니라 거절 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감정과 소망들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 방어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인 신경증 집단에 있어 방어되지 못한 거절 불안, 혼란스러운 감정들, 부모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소망들이 무시형의 의식적 수준에 현저하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대인관계 욕구 충족 점수간 상관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를 제외한 여러 유의미한 관계에서 자율감과 독립성 욕구,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친밀감 욕구, 친구와의 관계에서 유능감 욕구의 충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소망 충족은 애착 안정성과 아무런 관련성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정형 애착에서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소망의 충족감이 이미 마음깊이 내면화되어 적어도 의식적 수준에서는 현저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성인기에 있어 부모 관계보다는 상호호혜성이 요구되는 동등한 관계인 배우자와 친구 관계에서의 욕구 충족이 중요해 보이며, 아동기 애착 양식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지만 현재 유의미한 관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 4.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대인관계 욕구 충족간 상관

		안정성	공포성	몰입성	무시성
부	자율성	.24*	.17	-.20	.10
	유능성	.02	-.20*	-.12	.07
	관계성	.17	-.16	-.12	-.17
모	자율성	.12	-.31**	-.08	-.00
	유능성	.02	-.22*	-.02	.03
	관계성	.11	-.15	.12	-.20*
배우자	자율성	.30**	-.16	-.21*	.03
	유능성	.18	.05	-.08	-.04
	관계성	.24*	-.16	-.18	-.08
친구	자율성	.30**	.02	.08	-.16
	유능성	.29**	-.12	-.10	.06
	관계성	.32**	-.10	-.06	-.26*

\*  $p < .05$ , \*\*  $p < .01$

한편 공포성 애착의 경우, 성인기까지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욕구 좌절 및 결핍감을 느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무능하고 통제당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공포형 애착의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또 몰입형 애착은 과도한 친밀감 욕구와 관련되면서도 성인기 일차적 애착 대상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통제되고 속박된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무시성에 있어 특히 어머니와 친구 관계에서 서로 친밀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함이 중요한 원형적 특성으로 시사되었는데 특히 자기 자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며,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정서적 표상이 무시형 애착의 중요한 특징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환자 집단에 대한 부가적 분석 결과, 안정성은 성인기 주된 애착 대상인 배우자와 친구 관계에서만 자율성과 관계성과 정적 상관을 보여, 신경증 집단에서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보다 현재의 주된 관계가 애착 안정성 내면화에 더 큰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공포성 애착 역시 배우자와 친구관계에서의 자율성과 부적 관련성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유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여, 신경증 집단에서 성인기 애착관계인 배우자 및 친구관계에서 속박되고 통제된다는 느낌, 특히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무능감이 공포형 애착의 중요 특징임을 시사하였다. 몰입성 역시 부모보다는 배우자와 친구 관계에서 거의 모든 소망 충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몰입형이 지속적으로 애착 대상과의 관계를 소망하는 바 신경증 집단에 있어서는 성인기 가장 일차적인 대상인 배우자와 친구에게 소망충족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어 있음을, 또한 모든 소망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결핍감과 좌절감이 몰입성 애착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무시성은 부모 관계에서의 자율성, 어머니 관계에서의 관계성과 부적 상관을, 배우자와 친구 관계에서의 유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경증 집단에서는 성인기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부모의 통제와 속박에 대한 감정, 또한 일차 양육자였던 어머니와 친밀감이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느낌이 무시형 애착의 중요 특징임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기 애착 대상인 배우자 및 친구 관계에서는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 즉 강박적 자기의존과 관련되는 소망이 정적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적어도 방어가 약화된 신경증 집단에서는 무시형이 관계 외의 성취와 같은 영역에서의 소망이 현저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애착 원형과 대인관계 소망과 욕구와의 관련성이 그 욕구나 소망의 내

용에 따라, 애착 대상과 그 특정성 수준에 따라,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상인 집단인가 자아의 기능적 방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신경증 집단인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의 복잡성과 다양성 자체가 성인기 내적 작동 모델의 다면적 다차원적 특성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배우자와 친구라는 성인기 애착대상에 대한 소망과 감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불안정 애착의 경우 부모와의 해결되지 못한 여러가지 소망과 감정들이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 하겠다. 또한 인지적 자기 타인 표상보다도 소망과 욕구에 관한 관련성이 애착양식 원형의 동기적 발달적 역동에 대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결론지어 볼 수 있겠다. 차후 실제 애착상황에서의 ‘행동’을 어느 내적 작동 모델 요소가 어떻게 더 잘 예언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 4. 애착목표 달성과 관련된 행동적 전략과 계획 : 보살핌 행동, 갈등 해결 전략 및 대인관계 문제

이제까지 정서 조절이나 대인관계 행동, 관계 갈등 해결행동 등과 애착 양식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내적 작동 모델이 아니라 제삼의 정신내적 변인이나 대인관계 결과 변인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여러 행동은 관찰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연상황 혹은 실험실 관찰 기법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행동하는가가 아니

라, 나름대로 스스로의 대처 행동이나 행동 전략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즉 내적 작동 모델 요소 변인으로서 표상 수준에서의 행동 전략과 애착 양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Mikulincer, 1998a; 개관은 Mikulincer & Florian, 1998), 안정형인 사람들은 건설적이고 도구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유의미한 타인에게 지지를 구하고,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직시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 관리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자기 효능감 및 타인의 호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 좀더 융통성있고 건설적인 대처 계획을 세워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반면 회피형은 애착 체계를 비활성화시키려는 방어적 시도를 하고, 강박적으로 자기의존을 하려 하였다.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정서적 관여를 최소화하며, 애착 욕구를 부인하고 자율성과 통제를 추구하며 나쁜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고통을 보이기를 억제하며, 억압적 해리적 기제에 의존하였다. 양기형은 애착 대상과 밀착되고 안정 기저를 최대화하려고 하였다. 애착 체계를 과활성화시키고 예민해지며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통제하는 행동을 통해 타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였다. 또한 나쁜 생각과 기억을 과활성화시키고, 수동적이고 반추적인 대처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러한 대처, 정서조절, 애착 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애인)에 대한 보살핌 행동과 갈등해결 전략, 그리고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을 연구 초점으로 삼았다. 즉 애착 관계를 일반적인 것과 특정한 관계로 세분하고, 후자를 애정관계로 한정된 것이다.

특히 보살핌 행동은 아동기 애착과 달리 상호

호혜성이 요구되는 성인기 애착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Feeney & Collins, 2001), 배우자의 애착 행동을 보완하고, 실제적인 도움이나 편안함 및 안정감을 주거나, 안정기저를 제공하거나, 자율성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행동으로 정의된다(Bowlby, 1982, 1988; Kuncie & Shaver, 1994). 보살핌 행동과 애착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자기보고 연구를 보면, 스스로의 보살핌 행동에 대해 평가하였을 때 안정형인 사람들은 안정성, 근접성이 높고, 강박성과 통제성 행동이 낮았으며, 몰입형은 민감성과 협동성이 낮고 근접성과 강박성이 높아 비일관적이고 간섭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형은 강박성과 근접성이 낮고 민감성도 낮았으며, 공포형은 민감성과 근접성이 낮았지만 강박성은 높았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Feeney, 1996; Feeney & Collins, 2001; Kuncie & Shaver, 1994). 불안유발상황을 유도한 실험관찰 연구에서 배우자(애인)에 대한 보살핌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eeney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Nelligan, 1992). 본 연구에서는 Kuncie와 Shaver(1994)의 구분에 따라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곁에서 지지해주는가에 대한 근접성-거리두기 차원, 배우자의 욕구와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의 민감성-둔감성 차원, 배우자를 보살핌 때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는가 아니면 배우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가의 협동-통제 차원, 나 자신의 욕구보다 배우자의 것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가의 강박적 보살핌 등 네 차원으로 나누어 그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갈등 해결 전략은 실제 느끼는 결혼 만족도와 같은 외적 변인과의 관련성 규명 등 그 자체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주제이나, 전술한 바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지각하는 표상 수준에서의 갈등 해결 전략이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Feldman과 Gowen(1998)의 구분에 따라,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외현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가, 폭력을 사용하는가, 두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 제 삼자의 지지를 구하는가, 서로 타협하고자 노력하는가, 그 상황을 회피하는가, 주의를 분산하려고 노력하는가 등의 여섯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대인관계 문제가 애착 양식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른가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친구나 배우자 평정을 통해 관찰되는 대인관계 문제를 서로 비교한 연구들도 있어 왔다(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개관은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b). 이를 정리해 보면 안정형인 사람들은 대인관계 원형상에서, 자기보고와 친구보고 모두에서 온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어느 원형 차원에서도 극단적인 점수를 얻지 않았다. 무시형은 적대성 및 차가움, 공포형은 비주장성 및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문제를 보였다. 몰입형은 과도한 표현성 문제를 보였으며, 자기보고와는 달리 친구는 지배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대인관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각하는 표상 수준에서의 대인관계 행동을 초점으로 하였다.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 등과 정남운(인쇄중)의 분류에 따라,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 타인에 대한 의심과 적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감 혹은 냉담함,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회피적인 태도, 자신의 필요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비주장성,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기 쉬운 경향,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향,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남의 일이 끼어드려는 경향 등 8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 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보살핌 행동 질문지(Caregiving Behavior Scale)

Kunce와 Shaver(1994)가 부모의 아동 양육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 애착 관계에 적절하게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근접성-거리두기(내적 일치도 .83), 민감성-둔감성(.83), 협동-통제(.87), 강박적 보살핌(.80)의 총 4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당 내적 일치도는 각각 .83, .83, .87, .80 이었다. 각 요인당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배우자(애인)에 대한 보살핌 행동에 대해 자신에게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갈등 해결 전략 질문지(Conflict Tactic Scale)

Feldman과 Gowen(1998)이 Rands, Levinger, Mellinger (1981)와 Straus(1979)의 척도에 근거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외현적 분노 표현, 폭력 사용하기, 사회적 지지 구하기, 타협하기, 회피하기, 주의분산하기 등 여섯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8, 5, 2, 6, 5, 3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자기에게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대인관계 문제척도 원형(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Circumplex)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 (1988)의 대인관계 문제척도를 김정옥, 권석만과 정남운(2000)이 번안한 것에 기초하여, 정남운(인쇄중)이 원형 모델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술한 8개의 하위 척도가 있으며 하위 척도당 8문항씩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 당 자신에게 부합하는 정

도에 따라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보살핌 행동 및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자기 표상 간의 관련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배우자(애인)에 대한 자신의 보살핌 행동 표상에 있어, 애착의 안정성은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이 곁에 있어 준다는 지각과 관련되었다. 반면 공포성은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오히려 거리를 두고 회피하고자 하며, 배우자의 욕구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지각과 관련되었는데, 이는 정서적 관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회피하고자 하고, 지속적인 회피 전략으로 인해 민감하게 배우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 공포성 애착의 중요한 특징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몰입성의 경우 민감성과의 부적 상관은 상대와 밀착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대상적 충족을 하려는 자기중심적 동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나 상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낌을, 혹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만성적으로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알기 어렵고 복잡한 존재라는 타인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상과 달리 몰입성은 강박적 보살핌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표상 수준에서는 스스로가 타인에게 하는 보살핌 행동이 통제적이고 강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몰입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양육적이고 따뜻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주변 타인에

표 5. 애착 양식 원형 점수와 보살핌 행동 및 갈등해결 전략 점수간 상관

	안정성	공포성	몰입성	무시성
보살핌 근접성	.31**	-.22*	-.06	-.18
민감성	.09	-.24*	-.32**	.10
협동성	.03	-.05	-.08	-.11
강박적 보살핌	-.01	-.19	.01	-.20*
갈등해결 외현적 분노	-.04	.29**	.08	.11
폭력	.02	.10	-.06	.18
사회적 지지	.01	.04	.01	-.05
타협	.15	-.16	.04	-.12
회피	.07	.22*	.11	.11
주의분산	-.04	.03	.22*	.06

\*  $p < .05$ , \*\*  $p < .01$

의해서는 통제적이고 지배적으로 평가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Horowitz et al., 1993). 무시성은 강박적 보살핌과만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애착의 무시성이 타인보다는 나 자신을 우선한다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의식적 수준에서는 무시형이 배우자와 거리를 두고자 하거나 배우자의 욕구에 둔감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 표상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무시성은 모든 하위 척도와 무관하였으며, 공포성은 외현적 분노 표현과 회피적 태도와 정적 상관을, 몰입성은 주의 분산 책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스스로가 갈등 상황에서 외현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동시에 회피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것이 공포성 애착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모순적이고 문제증폭적 대처방략이 공포형 애착의 중요한 특징임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

한 회피적 애착인 무시성이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공포형이 자기 자신에 대해 좀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무시형은 본인의 대인관계 행동에 대해 통찰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몰입성 애착이 주의분산 책략과 관련된 것은 몰입형 애착을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 배우자와의 갈등이 상실이나 거절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 자체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를 하게 됨을 의미할 수 있다.

환자집단에 대한 부가적 분석 결과, 보살핌 행동 표상에서는 근접성과 민감성이 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몰입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포성은 민감성과만 부적 상관을 보였고, 무시성은 아무런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표상에서는 타협 요인만이 애착의 공포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표 6. 애착 원형 점수와 대인관계 문제간 상관

	안정성	공포성	몰입성	무시성
IIP 타인 통제경향	.11	.14	.13	.14
의심과 적의	-.26**	.35**	.10	.32**
불편감/냉담함	-.35**	.40**	.19	.21*
위축/회피	-.31**	.30**	.28**	-.03
비주장성	-.15	.16	.31**	-.15
이용당하는 경향	-.22*	.28**	.36**	-.26*
과도한 배려	.06	.20*	.33**	-.34**
과도한 간섭	-.04	.25*	.35**	-.26**

\*  $p < .05$ , \*\*  $p < .01$

다음으로, 애착 양식 원형 및 차원 점수와 스스로 지각한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안정형 애착에서는 타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편안해 하며, 위축되고 회피하기보다는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자기 표상이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의 공포성은 타인을 적대적으로 지각하고 숨은 동기를 의심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껴 위축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자기지각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관심을 얻거나 간섭하려는 통제적 경향이 있다고 스스로를 보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몰입형 애착은 자신이 너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고 회피한다고 지각하는 한편, 자기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행동(self-effacing)을 통해 이용당하기 쉬우며,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상대방의 일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스스로를 보면서도 그것이 통제적인 경향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함을 시사하였다. 무시형은 타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숨은 동기를 의심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나,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하지 않으며 남을 배려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 집단에 대한 부가적 분석 결과, 의심성, 불편감, 위축 및 회피, 비주장성, 이용당하는 경향 모두 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공포성과 몰입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몰입성은 지나친 관심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정상인 집단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환자 집단에서는 몰입성 애착이 의심성과 불편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몰입형에게 잠재적으로는 타인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대인관계 불편감이 강하지만 자아 방어 기능이 약화된 신경증적 집단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현저해지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를 ‘느끼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보살핌 행동, 관계갈등해결 행동, 대인관계 행동에 대한 자기지각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저에 있는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애착 원형점수간에는 보살핌 행동이나 갈등해결 책략보다도 상관의 정도가 더 높고 견고한데, 이는 애착 원형 점수 즉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본인의 애착 양식에 대한 지각과 그 특정성 수준에서 일치하는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모습이 서로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전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양식에 대한 원형적 접근을 통해 내적 작동 모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은 누구나 여러가지 애착 양식과 작동 모델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을 각 애착 양식 분류에 할당하는 범주적 접근을 지양하고 개인내 각 애착 양식 원형이 내면화된 정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원형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애착 양식 즉 사회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핵심 성격 변인인 내적 작동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내적 작동 모델을 애착관련 경험에 대한 기억표상, 자기와 애착 대상 및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 애착관계에서의 소망과 욕구, 애착 행동관련 행동적 전략 및 계획 표상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한편, 애착 대상을 일반적인 타인과 유의미한 타인으로, 유의미한 타인을 다시 부모, 배우자, 친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내적 작동 모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좀더 다각도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내적 작동 모델의 첫번째 요소로 부모의 과거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 표상을, 두번째 요소로는 보편적 자기 타인 표상구조를 살펴보았다. 세번째 요소로서 애착관련 소망과 욕구를 그 내용과 충족의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고, 네번째 요소로 성인기 가장 유의미한 애착 대상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자신의 보살핌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에 대한 지각된 표상,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된 표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관 양상이 각 표상의 내용에 따라, 애착 대상의 특정성과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

제로 내적 작동 모델이 개인 내에서 중다적이고(multiple) 중층적(multilayered)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실시한 범주적 접근의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여러 유의미한 결과들이 상관분석에서 도출되었고 범주적 접근의 결과는 모두 상관분석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원형적 접근이 역설적으로 각 애착 범주 원형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범주 전형성 파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의 안정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려 주었고,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으며,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었고, 신체적 접촉이 편안하였으며, 감정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아버지 자신의 욕구보다 나 자신을 우선해 주었다는 기억과,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려 주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는 기억과 관련되었다.

또한 자신이 사교적, 호의적, 유능하다는 지각, 아버지가 유능하고 호의적이라는 지각, 일반 타인은 사교적, 지배적, 주장적, 유능하다는 지각, 친구는 능동적, 적극적, 유능하다는 지각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어머니 및 배우자 표상과는 무관하였는데 가장 유의미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의식 수준에서는 서너 가지 요인보다 훨씬 분화되고 복잡한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소망과 욕구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친구에 대한 친밀감 욕구와만 정적 관련성을 보여, 애착이 안정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상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타인에 대해 욕구가 충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아버지,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였고, 배우자와 친구라는 상호호혜적 관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 친구와의 관계에서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관련 요소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욕구 충족감이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하였는데, 이는 애착 안정성에 있어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소망의 충족감이 마음깊이 내면화되어 적어도 현상적 수준에서는 현저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으며 다른 의미있는 대안적 해석도 요구된다.

배우자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는 배우자가 필요할 때 자신이 곁에 있어 준다는 표상만이 안정성과 정적 관련성을 보일 뿐이어서, '특정' 대상에 대한 보살핌 행동이나 갈등 해결 행동에 대한 표상은 적어도 의식적 수준에서는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자기평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의 대인관계 행동에 대한 자기지각에서는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사회적 상황을 편안해 하고 회피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표상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애착의 공포성과 내적 작동 모델 요소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부모에 대한 기억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욕구와 상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기억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자기는 비사교적이고 친구가 소극적이라는 평가와만 관련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기 공포성 애착과 관련하여서는 부모나 일반 타인,

배우자보다 친구가 의식적 표상 수준에서 유의미한 대상임을 의미하거나, 혹은 다른 유의미한 대상에 대해 일관된 표상을 의식적 수준에서 내면화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 해석되었다.

대인관계 소망과 욕구에 있어서는, 전반적 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전반적이든 특정적이든 모든 관계에서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었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회피하고 싶어하지 않음과 접근-회피의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이 공포성 애착의 원형적 특성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속박되고 통제되며 유능감 욕구가 좌절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욕구들이 성인기까지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자신이 유능한 존재라는 자기 가치감 관련 욕구 및 자율성 욕구의 좌절이 공포성 애착에 중요한 원형적 요소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지 않으려 하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스스로를 지각하는 것과 관련되었는데, 이는 공포형 애착이 우세한 사람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의미하며, 공포성 애착에 있어 관계 회피의 중요한 동기적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론되었다. 또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외현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동시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자기지각과 정적 관련성을 보여, 스스로 지각하는 바 갈등과 문제를 증폭시키는 방향의 대처행동이 공포성 애착 원형의 중요한 특성임을 시사하였다. 전반적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스스로



를 의심이 많고 타인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껴 위축되고 회피하고자 한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간섭하려는 통제적 경향이 있다는 표상과도 관련되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양가 감정과 공포성 애착이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점과 일관되게, 대인관계 상황에서 접근 회피의 갈등을 느끼고 모순적이고 혼란된 대처행동을 한다고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점이 공포성 애착 원형에 주요 특징이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애착의 몰입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과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과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나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표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 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지각한다는 점이 몰입성 애착의 중요한 원형적 특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이 몰입형 애착이 우세한 사람들이 혼란되고 모순적인 애착 행동을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대인관계 소망과 욕구에서 모든 일반적 특정적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한 관련성을 나타내 이것이 몰입성 애착 원형의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느끼면서도 부모와 배우자와 같은 특정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싶고 친구 전체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는 점이 몰입성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이는 막연한 친밀감 욕구를 느끼면서도 실제 관계 속에서는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점, 그리고 또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충족하려 한다는 점이 성인기 몰입성 애착의 중요한 특성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배우자 관계에서 자율성 욕구가

좌절되고 통제된다는 느낌이 관련되었는데, 이는 몰입형이 과도하게 밀착된 관계를 원하면서도 막상 친밀한 상황이 되면 통제되고 속박된다는 느낌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의 욕구와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각이 관련을 보였는데, 이는 몰입형 애착이 우세한 사람들의 상대와 밀착되려는 동기가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어려웠음을 의미하였다. 강박적 보살핌과는 정적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몰입형이 자신이 배우자에게 통제적이고 지나치게 관여하려 한다고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갈등해결 전략에서는 주의분산과만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상실이나 거절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 자체를 외면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몰입형 애착원형의 중요한 특징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몰입형은 전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회피하는 경향도 다소 있다고 보며, 자기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행동(self-effacing)을 통해 이용당하기 쉬우며,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스스로를 지각하면서도 그것이 통제적인 경향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넷째, 애착의 무시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억과는 무관하였으며 다만 어머니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다는 기억과만 관련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맞추어(tuning) 주지 못하였다는 좌절스러운 기억이 애착의 무시성이 관련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무시성 원형의 경우도 의식적 수준에서는 부모의 과거 양육행동에 대해 일관된 기억표상을 형성하

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자기표상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타인표상에 있어 아버지가 무능하고 적대적이며, 친구가 적대적이라는 표상과만 관련성이 나타났다. 의식적 수준에서의 자기표상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관련되지 않아 다소 의외였는데, 이러한 자기보고식 방법이 무시성 애착에서의 자기 표상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친구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지각한 것은 친구를 잠재적 거부자 혹은 자신에게 주어질 인정이나 자원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가설은 아버지 표상의 적대성과 더불어 추후 재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인관계 소망과 욕구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친밀감 욕구, 부모,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부적 상관을 보여, 무시성 애착이 이러한 감정과 욕구들과도 하게 부인하려는 경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상호호혜적 관계인 배우자와 친구에 대해 인정욕구가 부적 상관을 보인 점도 과도한 자기충분성(self-sufficiency)의 과시로 해석되었다. 흥미롭게도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과 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것은, 무시성 애착의 방어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혼란되고 모순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무시성 애착 원형의 중요한 특징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양가감정으로 인한 고통이 다른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관련된 소망이나 부정적 감정들을 모두 부인하고 강박적으로 자기 의존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어머니와 특정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부적 관련성을 보인 것은, 무시성 애착에 있어 유능감이나 자율감이 아닌 친밀감 욕구의 좌절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 이는 친밀감 욕구 자체를 부인하면 서도 이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모순적 정서표상이 무시성 애착 원형이 중요한 특징이 됨을 시사하였다.

한편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한다는 지각 외에 다른 보살핌 행동이나 갈등해결 행동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정성 애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애착의 무시성은 적어도 현상적 수준에서는 특정한 배우자 관계에서의 보살핌이나 갈등해결 행동표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해 적대적으로 지각하고 숨은 동기를 의심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나,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하지 않으며 남에게 배려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음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이는 무시성 애착 원형에 있어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타인에게 배려나 관심을 두지 않으며 관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자기지각이 중요 특성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애착 양식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이상적 방법인 원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범주적 접근이 초래하는 자료의 손실을 막음으로써, 차원적 접근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애착 유형의 원형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차후 좀더 정교화 된다면 애착의 개인 내 변산에 대해 그리고 애착 범주 원형의 전형적 특징에 대해 더욱 의미있는 발견들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내적 작동 모델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애착 대상을 특정성 수준과 대상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내적 작동 모델의 복잡성과 다양성

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각 요소에 대해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개인이 가진 현상적 표상 수준에서 접근함으로써, 의식권 수준에서 작동하는 내적 작동 모델 표상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이렇게 의식적 표상 수준에서의 내적 작동 모델 표상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적응을 돕는데 있어 애착의 불안정성이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며, 동시에 애착의 안정성 증진과 관련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있어 개인의 어떤 표상적 측면이 어떤 부적응적 요소를 띠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치료 목표를 정하는데 요긴한 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단기 역동 치료에서는 우호성, 순종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는 쉽게 치료되는 반면 적대성 지배성 문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Horowitz et al., 1993), 이와 관련된 애착에서의 내적 작동 모델 요소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성을 증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치료 목표와 방법 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 작동 모델 요소 각각에 대해 병렬적으로 그리고 탐색적으로 살펴보거나 하여, 결과가 너무 많이 제시된 것이 오히려 그 의미를 구조화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다. 각 요소 특성 뿐 아니라 그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등 본 연구를 시발로 좀 더 정교화되고 세분화된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본 결과에 대해서도 차후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환자집단은 수가 너무 적어 그 결과를 본 연구 표본 이외에 일반 신경증 환자 집단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아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정상인과, 자아의 순기능적 방어가 약화되어 부적응을 겪고 있는 신경증 환자 집단간에 애착 양식이나 내적 작동 모델의 요소에 어떠한 질적 혹은 양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의미있는 후속 연구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애착 원형 정도와, 자신이 지각하는 수준에서의 표상으로서의 내적 작동 모델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기보고로 성인 애착 양식을 측정하는 것이 상당한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를 가지며(Shaver & Hazan, 1993), 면담 평정치와도 어느 정도 수렴됨을 보여왔지만(Bartholomew & Horowitz, 1991; Bartholomew & Shaver, 1998)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상당하다(개관은 Bartholomew & Shaver, 1998). 특히 무시형 애착의 경우 심층적 자기표상은 부정적이나 강박적 자기의존과 친밀감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방어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되므로 이들이 자기보고 검사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면이 더욱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보고방식만을 통한 애착 원형 정도의 평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내적 작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의식권 밖에서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자기보고식 방법론을 통해서만 내적 작동 모델 특성을 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적 작동 모델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표상이지 실제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구별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내적 작동 모델을 자기보고와 다른 방식으로

파악해 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그림검사나 로샤 검사와 같은 투사법 검사에서 자기표상, 일반적인 타인표상, 특히 부모 표상, 남성 혹은 여성 표상 등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 혹은 애정 욕구나 거절불안 등과 같은 정서와 욕구의 심층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기보고식으로 평가된 내적 작동 모델 요소와 투사적 방법을 통해 평가된 것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이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한 애착 원형 점수와는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혹은 AAI나 가족 애착면담(Family attachment interview), 또래 애착면담(Peer attachment interview) 등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평가된 애착 원형 점수와는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그것이 서로 질적으로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Griffin & Bartholomew, 1994).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학력 수준, 성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중요한 인구학적 변인과 유의미한 성인기 애착관계를 맺은 기간의 정도 등과 같은 주요 혼입변인에 대해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여러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성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보다 큰 표본에 대하여 정교한 통제가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Kunce와 Shaver(1994)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본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한 것인데다 하위 척도별 문항이 2-4개로 내적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대인관계 소망과 욕구, 보살핌 행동 등에 대한 척도들도 신뢰도와 타당도, 요인구조에 대한 추후 검증이 요구된다. 유의미한 상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도 척도들의 신뢰도 타당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애착에 관한 여러 국내 연구들 가운데, 관련된 문헌들을 효과적으로 개관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연구자의 불찰이다.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연구와 결과의 체계적 누적을 위해, 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형적 접근과 같은 방법론의 사용의 도모를 위해서도 국내 연구들에 대한 개관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석만 (미발표).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정남운 (인쇄중).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Ainsworth, M.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infant-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40*, 969-1025.
- Baldwin, M. W., & Fehr, B. (1995). On the instability of attachment style ratings. *Personal Relationships, 22*, 247-261.
- Baldwin, M. W., Fehr, B., Keedian, E., Seidel, M., & Thomson, D. W. (1993).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schemata underlying attachment styles: Self-report and lexical decision approach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746-754.
- Baldwin, M. W., Keelan, M.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s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rtholomew, K., & Shaver, P. R. (1998). Methods of assessing adult attachment: Do they converge?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25-45). NY: Guilford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I. Attachment*. Middlesex, UK: Penguin.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III.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annon, R. (1976). Attitude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B. Seidenberg & A. Snadowsky (Eds.), *Social Psychology* (pp.145-197). New York: Free Pres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d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Bretherton, L., Biringen, Z., Ridgeway, D., Maslin, C., & Sherman, M. (1989). Attachment: A parental perspectiv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202-221.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 Psychology*, 24, 92-100.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257-278.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10-83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llins, M.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content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5, pp.53-90). London: Jessica Kingsley.
- Cook, W.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85-294.
- Cozzarelli, C., Hoekstra, S. J., & Bylsma, W. H. (2000). General versus specific models of attachment: Are they associated with different

-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5), 605-618.
- Diamond, D., & Blatt, S. J. (1994). Internal working models and the representational world in attachment and psychoanalytic theories.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pp. 72-97). NY: Guilford Press.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eney, J. A., & Collins, N. C. (1998). *An attachment/caregiving perspective on social support exchanges in intimate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Saratoga Springs, NY.
- Feeney, B. C., & Collins, N. C. (2001). Predictors of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72-994.
- Feldman, S. S., & Gowen, L. K. (1998). Conflict negotiation tactics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6), 691-717.
- Fox, N. A., & Kimmerly, N. L., & Schafer, W. D. (1991). Attachment to mother /attachment to fathe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2, 210-225.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a).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b).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 17-52). London: Jessica Kingsley.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49-560.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205-237). London: Jessica Kingsley.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vy, K. N., Blatt, S. J., & Shaver, P. R. (1998).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07-41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6.
- Main, M., & Watson, D. R. (1981). The quality of

-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ikulincer, M. (1995). Attachment style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203-1215.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and affect regulation: Strategic variations in self-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20-435.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143-165).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Mikulincer, M., & Horesh, N. (1999).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 perception of others: The role of projective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6), 1022-1034.
- Pearson, J., Cohn, D. A., Cowen, P. A., & Cowen, C. P. (1994). Earned- and continuous security in adult attachment: Relation to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sty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359-373.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course: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31-71). New York: Guilford.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in adults: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9-70). New York: Guilford.
- Shaver, P. R., Collins, N. J., & Clark, C. L. (1996). Attachment style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of self and relationship partners. In G. J. O. Fletcher & J. Fitness (Eds.), *Knowledge structures in close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p. 25-61). Mahwah, NJ: Erlbaum.
- Shaver, P.R.,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In R.J. Sternberg & M.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68-9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4-446.

원고접수일 : 2001. 12.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 14.

게재결정일 : 2002. 1. 14.

## Explo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prototypes and the components of internal working model

Soo-Jung Han    Min-Sup Shin    Zoong-Sul Kim    Seok-Man Kwo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prototype approach on the adult attachment styles and recent theory for multiplicity of internal working models in an individual,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prototypes and four components of internal working model, i.e., memory representation of attachment-related experiences, self- and other-representations, interpersonal wishes and needs, and representations of interpersonal coping behaviors and strategie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re were distinctive and complex correlation patterns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representation content or hedonic tone and specificity of attachment object and who the objects are. It suggested that there are multiple and multilayered internal working models in an individual that cannot be identified by the categorical approach and researchers must consider within-person variation of attachment style.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dult attachment style, prototype approach, internal working model*